

## 또래간의 담화를 통한 여아의 권력 행사 전략에 관한 연구

Processes in the Exercise of Power in the Conversations of  
Girls of About the Same Age

권미량(Mee-Ryang Kweon)<sup>1)</sup>

서영희(Young-Hee Suh)<sup>2)</sup>

### ABSTRACT

Subjects included Hyomin Kim and Eunha Sohn (fictitious names) of Purum Class (a class for 5-year-olds) at 'H' Kindergarten. Subjects were selected after interviews with teachers and observation by the researcher. This study examined communication with classmates focusing on spontaneous dialog situations and functions. Results showed that Hyomin and Eunha exercised power in the art group and the math groups, respectively. The power exercise processes comprised a variety of behaviors including: to become similar with each other; to assign an exclusive seat; to act as an elder sister; to allow to do something; to keep a friend at a distance; to defend oneself; to threaten or persuade with a diversity of linguistic strategies; to teach like a teacher.

**Key Words** : 담화(conversation), 권력(power), 권력 행사 전략(power exercise process).

### I. 서 론

유아의 언어 능력은 매우 어린시기에 시작되며, 아동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특히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담화는 유아가 성장해 나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루어 가는데 필수적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유아기 초기에는 주로 부모나 가족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담화가 이루어지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또래나 교사 등 대상이 변화되고 범위가 확대된다. 차츰 부모나 가족, 또래, 교사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 의사 소통능력을 발달시키며, 또래간의 담화를 통하여 상대방과 동등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 나가게 된다. 담

<sup>1)</sup> 대동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sup>2)</sup>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Mee-Ryang Kwe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aedong College, Busan 609-715, Korea  
E-mail : kidlove@daedong.ac.kr

화 기술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로서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시키게 됨으로 유아의 사회적 적응을 예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은 관련 연구를 통해 제시되어 왔다(백경미, 1998; 이용주·윤지영, 2004; Dodge, Pettit, McClaskey, & Brown, 1986).

특히 또래간의 담화는 부모, 가족 등과의 상호작용 특성을 좀 더 넓은 사회 현상에 적용하는 기술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유아들의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담화를 통해 그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다(이철영, 1985; Campbell, 1991). 이러한 담화의 분석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 갈등, 권력의 의미에 관한 것은 유아의 또래 집단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의 발달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심성경, 1996; 이용주·윤지영, 2004; 이철영, 1985; Campbell, 1991; Kyratzis, 2000).

유아는 놀이를 통하여 또래집단의 담화를 활성화해 가고, 이러한 또래 간 상호작용은 집단 내에서 위계구조의 성격을 갖게 된다. 또한 Williams & Schaller(1993)의 연구와 Humphreys & Smith(1987)는 유아들이나 학령기 아동들은 갈등상황이나 공격적 상황에서 강압을 사용하거나 일상적인 놀이 상황에서 또래들에게 권력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때 놀이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결과 상황에 대한 예상력과 설득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 등 인지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래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나 상호작용 하는 빈도의 횟수, 의사소통기술의 체계화와 같은 사회적 능력이나 기술은 인기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백경미, 1998; Leavitt, 1991), 이러한 면도 권력이나 위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은 또래와의 담화를

통해 다양한 언어, 몸짓, 교류를 해 나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특성은 교육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복잡한 개념이 될 수 있다(Flori, 1978). Miller, Danaher, & Forbes(1986)는 남아와 여아의 의사소통의 방식이 다름을 지적하면서 5~7세 남자는 강압적인 방식의 담화를 사용하는 반면 여아들은 타협하기, 얼버무리기를 포함하는 완화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성별 차이에 대한 논란을 둘러싸고 힘과 우월성에 대한 연구(Cameron, 1996; Eckert & McConnell-Ginet, 1992; Freed, 1992)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힘은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감정에 영향을 주어 물리적,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다(박성주·홍용희, 2002). 이러한 연구들은 유아의 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권력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사와 유아 사이에 나타나는 권력관계에 대한 연구(Coie & Kupersmidt, 1983; Doge, 1983; Doge et al., 1990; Leavitt, 1994)에서 교실에서 일어나는 또래 간의 권력 관계는 사회적 선호성의 측면에서 또래 간 지위를 설정하여 지위에 따른 행동 특성을 드러낸다. Leavitt(1994)은 교실에서 드러나는 권력의 실체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발견하기 어려웠음을 밝혔다.

국내의 경우 유아 권력에 대한 연구는 한정적이다. 유아의 권력형성에 대한 논의로는 김진영(1999)의 연구에서 문화기술적 접근을 통해 유아들이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을 “권력의 출현”, “권력의 유지”, “권력의 분산”이라는 흐름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상황, 유아의 개인적 기질, 교사라는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박성주·홍용희(2002)는 유아들의 사회적 힘의 부정적 사용 양상 및 특성을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 갈등과 권

력의 출현을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조경단(1991)의 연구와 김재운·권민혁(2002)의 연구에서는 또래집단에서 특히 여아들의 권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는 유아들의 집단 형성에서 권력을 형성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여아들의 경우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권력 행사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Blatchford & Sharp(1994)는 유아교육기관의 실내외 장소가 단지 유아들의 놀이공간으로만 의미가 부여되고 그 속에 내재하는 권력과 지위에 근거한 사회적 관계 형성이 종종 간과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유아기에게도 수직적인 지배 위계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과 유아들도 또래들의 지배위계를 인식한다는 것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왔고(이부미, 1991; 조경서, 1991; Sluckin & Smith, 1977), 이후 지위, 권력, 리더, 사회적 힘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유아들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힘의 불균형과 지배전략을 밝히는 연구를 해왔다(김진영, 1998; Hartup, 1983).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권력과 지위의 존재 사실이나 여아들이 남아들과 구별되는 권력행사의 특성 상 언어적 상호작용에 특성이 있음을 밝혀왔지만 이러한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구체적 전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심층적 연구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권력의 특성이나 남아의 권력행사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온 연구는 있었지만 이러한 권력행사의 특성을 구체적이고 실증적 현장에서 드러내는 전략 분석은 그 연구가 제한적이었다. 이는 유아들의 권력 특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이고 실증적 자료와 정보에 대한 연구와 논의들이 필요한 시점임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아교육현장에서 여아들이 담화를 통해 드러내는

권력 행사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권력과 갈등 형성, 여아들의 언어적 담화 특성에 대한 연구들의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아들의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래관계는 집단의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행사되므로 개인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집단 속에서 개인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기 때문(Erwin, 1995; Kantor et al., 1993; Strayer, 1995; )에 일상생활 속에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는 권력 행사 전략을 담화를 행사하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질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여아들의 권력 출현, 유지, 분산을 행사하는 과정을 담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여아들의 권력 행사의 구체적 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여아의 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행사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 담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만 5세 여아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통해 전략들에 대한 질적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질적 접근을 통한 여아의 권력 행사 전략은 추후 지속적 남아의 권력행사 전략의 폭넓은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이후 학급 속에서 중재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실증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 어린이집은 부산 Y구에 있는 H어린이집이다. H어린이집은 2003년 2월에 개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가족배경

내용	유아명	손은하	김효민
가족형태	맞벌이 가정	맞벌이 가정	맞벌이 가정
성 별	여	여	여
출생순위	첫째	첫째	첫째
형제여부	여동생 1명	남동생 1명	
H어린이집에 다닌 경력	3년	2년	

원하여 현재 만5세반 2학급, 만4세반 2학급, 만3세반 2학급, 만2세반 2학급으로 총 8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언어발달 특성 상 담화가 가장 활발하고, 구체적인 만5세 푸름반에서 36명의 유아들을 사전 관찰하였다. 그리고 권력 행사 과정이 나타나는 권력이 중 여아 2명을 담임교사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선별된 유아 2명 김효민·손은하(가명)를 선정하여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담화를 통해 그 속에서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가족배경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손은하는 여동생을 1명 둔 장녀이고, 부모가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어머니는 시간강사이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면 유아교육기관에 협조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자녀 둘 중 첫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오랜 기간을 있어서 어린이집의 교사나 시설에 매우 친숙함을 가지고 있다. 김효민 또한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교사여서 24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녔고, 현재 소속된 H어린이집은 올해로 2년째 다니고 있다. 남동생이 1명 있고,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권력아들에게 나타나는 권력행사전

략을 살펴보기 위해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여러 가지 문서자료의 수집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검토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자료 수집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참여관찰

연구기간은 2005년 9월 6일부터 2006년 1월 6일까지 4개월 기간동안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편견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연구자 2인과 연구 보조자 2인이 학급에 참여 관찰하도록 하였다. 연구보조자 2인은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 자료수집 및 분석의 과정에 평가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삼각측정법’의 접근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보조자와 연구자는 사전에 레포를 행사하기 위한 2차례의 예비참여를 실시하였고, 2차례의 관찰훈련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은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단계는 2005년 9월 6일에서 10월 18일까지 주 2회씩 12회기의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대상 푸름반 교실에서 일과구성 및 서술관찰을 통해 포괄적 유아들의 생활을 관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대상인 ‘손은하’와 ‘김효민’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는 사전관찰에 근거하여 권력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두 명의 사례로 선정되었다. 2단계는 2005년 10월 21일에서 11월 19일까지 푸름반 교실에서 연구대상 유아들의 모든 일상에 대한 전반적 과정을 포괄적으로 탐색적 관찰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는 2005년 11월 21일에서 2006년 1월 6일까지 주4회씩 21회기의 서술관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연구의 범위가 좁혀짐에 따라 교사와의 면담 및 연구자의 관찰에 의해서 상황과 장면에서 선별적으로 관찰이 진행되었으며, 관찰시간대도 자유선택활동시간을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자유선택활동시간 중 또래집단은 크게 권력 아를 중심으로 미술영역의 집단과 수학영역의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미술영역은 ‘손은하’를 중심으로, 수학영역은 ‘김효민’을 중심으로 행사되었다. 미술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집단의 아이들은 ‘은하, 민정, 규빈, 신애, 소영이’로 5명의 여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오전, 오후 자유놀이시간의 대부분 시간을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그림 그려서 꾸미기 등의 활동을 하는데 보냈다. 수학영역 집단은 권력 아 김효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수학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집단의 아이들은 효민이를 비롯하여 영호, 진우, 동주로 4명의 아이들인데, 효민이를 제외한 3명의 아이들은 모두 남자아이들이었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유아들의 하루일과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관찰한 후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며, 특히 놀이감이나 영역, 역할에 대한 갈등이 드러나 또래간의 권력관계가 행사되는 전략을 관찰할 기회가 많았다. 참여관찰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직접 실시하여 현장연구노트를 기록하고 경우에 따라 비디오와 촬영을 함께 하여 현장노트 해석 시 보조자료로 활

용하였다.

2) 면담

심층면담은 교사 2명 각각과 연구자 1인 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Fetterman(1989)이 제시한 인터뷰 절차를 응용하여 반구조화 면담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즉 면담은 탐색되어질 일련의 질문들 혹은 쟁점들에 의해 이끌어지지만, 정확한 언어화나 질문의 순서는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영유아 보육의 어려움, 초기 적응과정, 직장보육시설로 인한 삶의 변화, 직장보육시설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응답한 내용을 녹음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면담은 푸름반 교사 2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면담자료의 기록은 녹음기와 필기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3) 문서자료 수집

문서자료는 학기 초에 어린이집에서 가정으로 보낸 원아조사서, 연간교육계획안, 월간교육계획안, 푸름반 교사일지, 학부모 면담기록, 연구대상 유아들의 포트폴리오 평가 자료 등 연구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표 2〉 Jefferson(1984)의 기술 표기 체계

표기 규약	
.	(마침표) 억양 곡선의 마지막에 억양 하강
?	(물음표) 억양 상승
,	(쉼표) 억양 곡선의 마지막에 억양 유지
::	(콜론) 음의 연장
-	(연자부호) 갑작스런 단절 표시
=	(등호) 연속 발화
never	(밑줄) 강제 어절이나 단어
( )	(빈 괄호) 표기할 수 없는 발화 분절
(word)	(괄호안의 단어나 어구) 의심스러운 표기
((gazing toward the ceiling))	(이중 괄호) 비언어적 활동의 표현

### 3. 자료분석

분석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진행하였다. 교실에서 관찰을 하고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교사와 면담을 하며, 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찾아보고 유아들의 문서기록을 살펴보는 등의 과정을 동시에 진행한다. 유아들의 대화는 Jefferson (1984)이 기술한 표기체계를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행동, 쟁점, 상황들을 개별적인 경우에 대해 Stake(2000)가 제시한 바 있는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직접 해석(Direct Interpretation)과 어떤 하나의 종류라고 얘기될 수 있을 때까지 모으는 범주 합산(Categorical Aggregation)을 통해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이것은 의미의 관계로 행위를 배열하고, 특성을 범주화하고, 어떤 직관적인 합산으로 계산하여 쟁점을 찾아 특성별로 해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권력아를 중심으로 담화를 통한 권력행사의 과정이 분석되었다.

그러나 질적 연구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줄이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원에 대한 삼각측정(data source 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Stake, 2000). 자료원에 대한 삼각측정을 위해 면담, 관찰, 관련자료를 대조하여 분석하였고, 연구자 삼각측정을 위해서는 연구보조자 2인의 관찰을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권력을 행사하는 유아가 또래관계와의 담화 상황 속에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어떠한 언어적인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관찰하고자 만 5세 유아 2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다.

따라서 두 권력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또래집단의 담화 과정에서 유아들 간의 발화의 내용, 즉 각적인 대화상황과 기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권력 행사의 구체적 전략으로 범주화 하였다.

### 1. 전략1 : 서로 똑같아지기

은하는 주로 미술영역 활동을 선호하면서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래와의 담화과정에서 같은 관심사로 묶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미술 활동을 좋아하는 은하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민정, 규빈, 신애, 소영이를 또래로 묶으면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 효진이는 수학 영역이나 과학 영역을 선호하면서 영호, 진우, 동주와 같은 남아들과 함께 같은 관심사를 통한 놀이를 만들어갔다. 이러한 집단 형성은 담화 과정에서는 집단을 확인하려는 전략으로서 서로 똑같아지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교사는 미술영역의 또래집단 형성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술영역에서 주로 놀이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여자 아이들이 많은데, 특히 여기 5명의 아이들이 주로 놀이를 해요. 저희는 반을 추천을 해서 정하는데, 이 아이들이 미술을 다른 또래친구들보다 잘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서로 좋아하는 것이 같아서도 잘 모이는 것 같아요. 우리 성인들도 그렇잖아요. (2005. 11. 23. 이교사 면담)

다음은 미술영역에서 은하와 그림을 그리면서 나타나는 담화의 내용이다.

은하 : 야, 이거 신기하제. ( ) 그리다가 실패했다.

민정 : 내가 그려줄까?

은하 : ((그림을 민정이쪽으로 내어준다))

민정 : ((조심스럽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은하의 표정을 살핀다))

은하 : 어:: 그게 뭘데?

민정 : ((은하를 보면서)) 니가 해라. 나도 못하겠다.  
 은하 : ((민정이가 그린 그림을 그냥 전체 단색으로 색칠해 버린다.)) 내가 좋아하는 책에 그림을 꽂아줘야지.  
 민정 : ((손가락을 입에 물고 은하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나는 ( ) 책을 제일 좋아하는데.  
 은하 : 나도 ( ) 책 좋아하는데. 똑같네=  
 규빈 : 우리 집에도 ( ) 책 있다.  
 은하 : 정말이거? 그럼 우리 세 명 다 똑같네?  
 규빈 : 은하야 나도 여기에 ( ) 하나 그려줘.  
 은하 : 이쪽으로 가지고 온나. ((자기가 앉은 쪽을 가르키며))  
 규빈 : ((은하 쪽으로 그림 종이를 가지고 간다))  
 은하 : ((규빈이의 그림 종이 위에 하트 그림을 하나 그려준다.)) 예쁘지?  
 규빈 : 이제 그림도 니꺼랑 내꺼랑 똑같다.  
 민정 : 나도 그려줘

은하가 그림을 실패했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민정이가 은하의 실패한 그림을 다시 그려준다고 제의를 하면서 은하의 그림 종이에 동그라미를 하나씩 그릴 때마다 은하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은하의 실망스러운 듯한 반응으로 민정이는 즉각적으로 본인도 못하겠다고 말하며, 은하에게 다시 그림 종이를 넘겨주며, 본인의 실수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려는 모습을 보인다.

민정이는 이런 은하의 모습을 보면서 다소 위축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은하가 자신이 좋아하는 책에 그림을 꽂아 놓겠다고 반응하자, 곧장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이야기하며 다시 관계의 결속을 이어가려고 노력한다. 은하는 민정과 좋아하는 책이 같다고 말하고, 규빈이도 집에 같은 책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3명의 유아들이 다시 친근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것을 따라하면서 집단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강화시키려는 전략을 보여준다.

위의 사례들에서 살펴본 결과 권력이 은하는

푸름반 교실에서 이미 형성된 미술영역 또래집단 내에서 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미술영역의 또래집단의 아이들은 서로 똑같아지기 전략을 사용하면서 서로의 유사점을 찾아서 집단 소속에 대한 결속력과 친근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의 동성 또래집단의 개인경험 이야기를 연구한 Kyratzis(2000)의 연구에서 여자아이들이 결속 확립을 위해 서로의 유사점을 찾고 강조하면서 친근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여아의 권력행사 전략에서 집단 소속을 확인하려는 전략적 경향성을 드러내는 측면이다.

## 2. 전략2 : “내 자리, 내가 먼저”

은하의 권력 행사 과정에서 “내 자리, 내가 먼저”와 같은 양상의 지배 전략을 나타내었다. 다음은 대그룹 모임을 하기 위해 모이기 과정에서 나타난 담화의 실례이다.

민정 : ((가방 장에 갔다 온 은하를 보고)) 은하야 신애가 니 자리에 앉았다.  
 은하 : 뭘? ((급히 미술영역으로 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신애를 보고)) 안: 비켜라. 여기 내 자리다.  
 규빈 : 내가 니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 말 안 듣는다.  
 신애 : 내가 먼저 왔잖아( ).  
 은하 : =그래도 여긴 내 자리다.  
 신애 : 내가 먼저 왔는데. 뭘데?  
 민정 : 안 그러면 나는 우리 팀 아니다.  
 은하 : 그때 니도 옛날에 그네 탈 때 그랬잖아,  
 신애 : 내가 언제?  
 은하 : 그렇게 해 놓고는 거짓말 좀 하지마라.  
 신애 : ((계속 은하 자리에 앉아 있다))  
 은하 : ((신애의 옷자락을 밀치며)) 저리 좀 가라.  
 민정 : 은하 말 좀 들어라 ( ).  
 규빈 : 니는 ( ) 그림도 못 그리잖아.  
 은하 : ((신애의 의자를 빼며)) 여기 내 자리다.  
 신애 : ((의자를 은하에게 뺏기고 불만스러운 표

정으로 옆에 계속 서있다))

은하 : ((신애에게 의자를 뺏어 앉고))자. 내가 싸인펜하고 색연필 나눠줄게. 오늘은 3가지 색만 쓸 수 있다.

민정이는 은하의 자리에 신애가 앉는 것을 은하에게 보고하고, 은하는 곧장 신애에게 자신의 자리에서 비켜줄 것을 요구한다. 은하의 자리는 미술영역의 집단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집단구성원들은 그 자리가 당연히 은하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술영역에 맨 먼저 도착해서도 은하 자리는 앉지 않았으며, 다른 친구도 앉지 못했다.

이러한 “여기는 내 자리”전략은 수학영역 집단에서 나타난 권력이 김효민을 중심으로 “내가 먼저”전략과 같은 유형으로 행사되어 있었다. 수학영역 집단은 권력이 김효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수학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집단의 아이들은 효민이를 비롯하여 영호, 진우, 동주로 4명의 아이들인데, 효민이를 제외한 3명의 아이들은 모두 남자아이들이다.

효민 : ((수학영역의 교구를 살펴보면)) 새 교구 사다리 타는 거 어디 갔는데?

영호 : ((진우를 보고)) 진우가 하고 있네.

효민 : ((진우 쪽으로 가서 교구를 잡고))야.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진우 : 아-야 잠깐만((교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효민 :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니까. 내가 하는 거 좀 봐라

진우 : 잠깐만::

효민 : 내가 먼저 하고 나하면 되잖아

진우 : 이것만 하고=

효민 : ((진우에게서 교구를 뺏으며))니 지금 엉터리다.

진우 : ((아무말이 없다))

효민이가 새로운 교구를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효민이는 진우가 이미 새 교구를 가지고 활동을 진

행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교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자신이 먼저 해야 한다는 말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변의 또래친구는 별 대응도 하지 못하고 효민의 주장에 따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 3. 전략3 : “내가 언니다”

은하의 권력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림 그리기와 꾸미기를 잘 하는 능력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요인에 근거해서 “내가 언니다”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은 은하가 미술영역에서 집단아이들에게 언니와 같은 입지를 만드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은하 : 자 종이를 나눠 줄 테니까 모두 눈 감고 있어라. ((모든 아이들이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다))

은하 :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싸인펜도 한 자루씩 나눠준다)).

신애 : 나는 싸인펜 보라색깔 하고 싶다.

은하 : 내가 주는 대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젠 싸인펜 없다

신애 : 니가 푸름만 선생님이가?

은하 : 나는 언니다 왜?

규빈 : 그래 은하는 그림도 잘 그리고 꾸미기도 잘하니까 그렇지.

신애 : ((은하를 보며)) 나이가 똑 같은데 어떻게 언닌데? 니가 뭐 초등학생이가?

은하 : 니 그러면 ( ) 그림 그릴 줄 아냐?

신애 : -((아무말이 없다))

민정 : 은하야. 빨간색깔이 잘 안나온다 어떡하지?

은하 : 선생님한테 가서 빨간 색깔 싸인펜 새 거 달라고 해라

은하는 미술영역 집단아이들에게 자신이 주는 대로 해야 된다고 말한다. 여전히 은하의 권력행사에 불만을 가진 신애가 반론을 제기하자 규빈이는 은하가 그림도 잘 그리고 꾸미기를 잘하기 때문에 언니 같다고 말하며 다시 은하를 적극적



으로 옹호하고 추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사들은 은하의 권력행사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미술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며, 똑똑하고, 고집이 세며, 특히 말을 아주 잘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었다.

은하는 여기 집단 외에 다른 아이들에게도 언니나 교사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학기 중에 신입원아가 들어왔는데, 그 애가 은하에게 언니라고 부르라고 있더라고요. 은하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다고 하면서...

(2005. 11. 25 허교사 면담)

교사는 이러한 은하의 “언니다”라는 권력 행사에 대한 영향으로 원의 ‘왕언니 역할’을 하는 어머니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은하 어머니도 저희 학부모님들 중 굉장히 적극적이고, 입담도 좋으셔서 대부분 어머니들이 ‘왕언니’처럼 좋아하세요. 다른 학부모들이 교사들 보다 은하 어머니께 어린이집 일들을 상담하기도 하시고, 저희 어린이집과 학부모와의 관계를 중재하시는 역할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사들도 좀 조심스럽죠.

(2005. 11. 28 이교사 면담).

즉 은하는 “내가 언니다”와 같은 입지를 만들면서 권력을 형성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전략은 특정 영역의 능력이나 부모와 같은 요인에 기반을 두고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전략4 : 허락하기

권력 행사 전략의 하나로 “허락하기”가 지배 전략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은하는 또래와의 담화과정에서 “허락”이라는 기제를 가지고 참여와 비참여를 통제하며 권력 구조를 형성시켜나가고 있었다. 다음은 은하와 또래들에게 허락하기 전략을 통해 놀이에 참여시켜가고 있고,

집단의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이러한 은하의 “허락하기”전략에 동조하는 다른 유아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다.

은하 : 남자들은 안 되고 여자들은 된다.

철민 : 그런데 어디있노? 남자들은 왜 안 되는데?

은하 : 여기는 여자들만 놀이하는 곳이다. 너는 내가 오라고 안했잖아

민정 : 그래. 은하가 오라고 해야지 여기 올 수 있다. 맞제. 은하야=

은하 : 그래. 민정이는 내가 오라고 했고, 규빈이도 내가 오라고 했다.

은하는 미술영역이 여자들만 놀이하는 곳이고, 자기가 오라고 한 사람이 아니면 올 수 없으며 미술영역 출입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은하는 간혹 미술영역에 참여할 대상을 자신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대상에 따라 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권력아의 선호도에 따라 승인의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져 가고 있었다.

#### 5. 전략5 : 시키기

효민이는 또래친구에게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시키기 전략을 사용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또래집단은 이러한 시키는 일을 큰 거부 반응 없이 실행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은 효민, 근영, 철민, 소라가 바깥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나타난 시키기 전략이다.

효민 : 모래놀이를 하다가 ((친구들을 보며)) 교실에 가서 휴지 좀 가지고 올 사람?

철민 : 왜 그러는데?

효민 : 추워서 콧물이 난다.

소라 : 감기 걸렸나:

근영 : ((자기 코를 만져보면서))나도 콧물난다

은하 : 빨리 휴지 좀 가지고 오나

근영 : 알았다((교실로 뛰어들어 간다))

효민 : ((근영이가 가지고 놀던 모래놀이 삽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삽과 바꾸어둔다))  
 근영 : ((휴지를 가져와 효민에게 건넨다)) 자 닦아라  
 효민 : ((כות물을 닦고 다시 근영이에게כות물 닦은 휴지를 주면서)) 저기 휴지통에 좀 버리고 온나  
 근영 : 이제는 니가 갔다 온나.  
 효민 : ((모래 파는 시늬를 하며)) 지금 이거 파야 하잖아  
 근영 : ((모래 삽이 바뀐 것을 모르고)) 어휴. 알았다::

근영이는 효민의 계속되는 시킴에 거부하는 모습도 잠시 보여주지만 결국 또 다시 효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은하의 경우도 술래하기에서 이러한 시킴 전략을 사용한다. 다음은 바깥놀이를 나가기 위해 옷을 입고 모둠 자리에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영 : 은하야 우리 바깥놀이터에서 같이 놀자  
 은하 : 음:: 잠시만.  
 진호 : ((은하를 보고)) 우리 탐정 ( ) 놀이 할래?  
 은하 : 보고( )  
 ((신발을 신으러 신발장으로 나간다. 소영이가 먼저 신발을 신고 은하를 기다리다가 은하가 신발의 후크를 잠그자 근영이가 은하의 손을 잡는다. ))  
 은하 : ((복합놀이터 놀고 있는 친구들에게로 달려가서)) 야:: 우리 술래잡기 하자. 내 잡아봐라((다른 곳으로 달려간다))  
 소영 : ((은하를 쫓아간다)) 은하야. 나도, ((술래잡기를 하자는 은하의 말이 끝나자 복합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은하를 따라간다. 여기에는 규빈이와 민정이, 신애도 포함되어있다.))  
 민준 : ((달려가서 은하를 붙잡는다)) 잡았다. 니가 술래다  
 은하 : ((민준의 손을 떼며)) 아니다. 다시  
 소영 : ((계속 은하만 쫓아다니며)) 은하야 니가 술래네  
 은하 : 아니. ((교사를 향해 달려가며)) 선생님. 근데 진호는 어디 있어요?  
 교사 : ((은하 뒷 쪽을 가리키며)) 바로 저기 있네.

은하 : ((진호에게 몸을 돌려 큰 소리로)) 진호야, 우리 탐정놀이 하자.  
 진호 : 그래((은하와 마주보며 두 손을 마주잡으며 제자리에서 두 번 뺨다))  
 은하 : 그거 어떻게 하는데?  
 진호 : 탐정 쿨하고 매궁이랑 긴머리 선생님이 나온다.  
 은하 : ((진호가 말하고 있는 중간에)) 난 쿨할거다, 니는 ( ) 해라  
 ((소영이 쪽을 보며 웃으면서)) 소영야 내 따라와 봐라  
 진호 : ((은하를 따라가며))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는게 아니다.  
 ((아이들은 다시 은하를 따라간다))  
 소영 : ((진호와 아이들에 이어서 은하를 뒤따라간다))

아이들이 은하가 시킴과 이동하는 데 따라 함께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은하를 잘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영이는 은하와 바깥놀이터에서 같이 놀자고 제안을 하며 계속 은하를 따라다니지만, 은하는 소영이에게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기를 따라와 보라고 하며 약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은하는 민준이에게 붙잡혀서 술래가 되어야 하자 갑자기 술래잡기 놀이를 거부하고 진호에게 탐정놀이를 같이 할 것을 제안한다. 은하는 술래잡기 놀이 규칙을 교묘히 위반하면서 탐정놀이를 변경하여 시킴 전략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놀이상황에서 언어적 전략으로 규칙이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시킴 전략이 나타나는 것으로 백경미(1998)의 연구와 이용주·윤지영(2004)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다. 즉 시킴 전략은 담화 능력의 특성으로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행사 전략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었다.

## 6. 전략6 : 소외시키기

역할놀이 영역에서 은하, 미진, 신애, 민정, 소영 5명의 여아들이 엄마놀이를 하는데, 은하가 엄마, 미진이가 아빠, 신애가 언니, 민정이가 아기이다. 소영이는 역할이 없었고, 역할놀이 영역에서 인형을 만지고 있다.

은하 : 내가 엄마니까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미진 : 아빠 말도 잘 들어야지( ),  
 규빈 : 나는 아긴데 뭐하지?( )  
 은하 : 지금 아기는 우유 먹고 인형가지고 놀아야 하는데::  
 ((인형을 가지고 노는 소영이를 보고)) 소영아 인형 주고 너는 다른데서 놀아라  
 소영 : 나도 여기서 엄마 놀이 할거다  
 은하 : 안돼다(화를 내며). 아기가 우유 먹고 인형가지고 놀아야 한다.  
 소영 : ((인형을 계속 만지며)) 나는 인형이 아기라고 해야지,  
 은하 : 빨리 나가라((소영이의 인형을 뺏어간다))  
 소영 : ((울음을 터트리며)) 선생님한테 일러 줄 거다 ((교사에게로 간다)) 선생님. 은하가 내 인형 뺏었어요.  
 교사 : ((소영이를 안으며))왜 뺏었는데?  
 소영 : 나도 엄마놀이하고 싶은데 나가라고 해요.  
 교사 : 은하야, 소영이가 같이 놀고 싶다는데  
 은하 : ((소영이가 가지고 있던 인형을 아기 역할을 맡은 민정에게 주며)) 엄마놀이 할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다 정해졌어요  
 소영 : ((교사를 쳐다보며 다시 역할놀이방으로 들어온다)) 같이 놀라고 했다  
 은하 : ((반응하지 않고, 역할을 맡은 아이들을 보며)) 엄마랑 시장에 가자  
 미진 : 아빠도 같이 가도 돼나?  
 ((은하가 시장에 간다고 역할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가자 아이들도 모두 은하를 따라 우르르 나온다. 결국 소영이만 역할 영역에 남아있다.))

미술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또래집단 아이들이 역할놀이 영역에서도 은하를 중심으로 역할이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하는 당연히 엄마의 역할을 하고, 미진이가 아빠, 신애가 언

니, 민정이가 아기로 역할이 정해졌으나, 소영이만 역할이 없었다. 역할놀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역할이 정해지지 않으면 함께 참여를 할 수 없다. 소영이는 교사에게 소외되어진 것에 대해 도움을 구하지만, 은하의 또래그룹에서의 소영이의 소외에 대해 교사의 영향력은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소외사건은 여자 아이들의 상호작용 패턴에 대한 개념으로 특히 여자아이들이 경쟁적이지 않다는 개념에 대응되는 것이라는 Goodwin(1983)의 주장과 일치된다.

## 7. 전략7 : 자기 방어하기

은하, 진호, 용진이가 바깥놀이터 옆 텃밭에서 나뭇가지를 주어서 모래사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바깥놀이 상황은 권력아의 지배 전략으로 자기 방어하기를 사용함을 드러내 주고 있었다.

교사 : 누가 텃밭에서 나뭇가지를 들고 왔니?  
 ((교사의 말에 은하, 진호, 용진이가 나뭇가지를 슬그머니 바닥에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려한다))  
 교사 : 은하, 진호, 용진이 다시 들고 오세요.  
 ((아이들이 다시 들고 교사에게로 간다))  
 교사 : 선생님이 이것으로 사용해서 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은하 : 진호하고 용진이가 하자고 했어요.  
 진호, 용진 : 내가 언제? 니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진호 : 은하가 이거((나뭇가지를 가리키며)) 우리한테 줬는데요.  
 은하 : 어휴=((나뭇가지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나뭇가지 제자리에 버릴려고 했어요.  
 교사 : 위험하니까 저 쪽 휴지통에 버리도록 하세요.  
 은하 : -아까 내가 진호한테 위험하다고 얘기 했는데요.( )

권력을 행사하는 은하가 교사에게 꾸중을 듣

게 되는 상황에서 두 명의 친구 탓으로 잘못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은하는 교사에게 진호와 용진이가 은하 자신의 탓으로 솔직히 이야기하자 자신의 거짓말을 방어하기 위해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돌리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은하는 교사의 위협하다는 말이 자신의 생각과 이미 같았고, 그래서 진호한테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통해 자기방어의 전략을 볼 수 있다.

다음의 효민이는 신체적 공격이나 울기와 같은 방어기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효민이의 또래친구들에 대한 신체적 공격 전략이 바깥놀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효민이는 모래놀이영역에 들어온 상대방 친구에게 신경질적인 신체적 공격을 보인다. 상대방 친구 태민이가 교사에게 효민이가 먼저 행한 신체적 공격에 대해 말하겠다고 하자 효민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효민이는 자신보다 태민이가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교사가 다가오자 고개를 숙이고 더 큰 목소리로 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효민이는 교사를 의식하여 울기 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방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어전략은 자신의 입장을 굳힘으로써 야단을 맞거나, 다른 유아들에게 지는 것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태민 : ((경찰놀이를 하면서 달려가다 모래놀이를 하고 있던 영역을 침범한다))어휴=

효민 : ((얼른 일어나서 태민이를 세계 밀며)) 야 트 판데가서 좀 놀아라. 니 때문에 이게((모래놀이하던 것을 가르키며)) 망가지잖아.

태민 : ((화난 목소리로)) 똘

효민 : ((다시 태민이의 가슴을 세계 밀면서))니가 여기 밟았잖아 어쩔래?

태민 : 왜 때리는데( ).((은하의 어깨를 민다))

효민 : (큰 소리로) 야:( )

태민 : ((화난 목소리로)) 니가 먼저 때렸잖아:: 니가 먼저 때렸다고 선생님한테 다 말할 꺼다.

효민 : ((태민이가 교사한테로 가려하자 갑자기 아주 큰 소리의 울음을 터뜨린다))

민정 : ((효민이가 우는 것을 보고))태민이 너 선생님한테 일러준다. 효민이 때렸다고

태민 : 효민이가 먼저 내 때렸다

효민 : ((교사를 한 번 본 후 좀 전 보다 더 크게 운다))

태민 : ((교사를 향해)) 선생님:: 효민이가 먼저 내 밀면서 때렸어요

효민 : 거짓말 마라. 니가 먼저 때렸잖아((효민이 쪽으로 오고있는 교사를 보자 갑자기 앉아 고개를 숙이고 더 큰 소리로 운다. 주변의 아이들이 효민이 주변으로 모여든다))

## 8. 전략8 : 협박 / 설득하기

다음은 은하, 미진, 규리, 민정, 신애 등의 유아 5명이 미술영역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미술영역에서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설득과 협박을 통한 놀이집단의 질서 세우기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소영 : ((가방에서 만화 미키 캐릭터 수첩 2장을 꺼내서 미술영역으로 간다))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내한테 온다

은하 : ((얼른 일어나서)) 뭘데? 어디 좀 보자. (미술 영역에 있던 아이들도 모두 소영에게로 모인다)

은하 : 잠깐만. 너희들은 여기 있어봐라. 내가 보고 얘기해 줄게.

((소영 손을 끌고 책보기 영역으로 간다)) 이리 와봐라

미진 : 아니다. 우리도 좀 보자((소영이한테로 가면서))

소영 : ((잠깐 머뭇거리다가))은하한테 먼저 보여 줄게 있어봐라.

은하 : 봐라. 여기 있어라. 내가 보고 얘기 해 주면 되잖아.

소영 : ((은하에게 끌리다시피 하여 교실 코너에 있는 책보기 영역으로 간다)) 미키 수첩인

데 예쁘제?((수첩을 꺼내 은하에게 보여주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은하 : 아니 잠깐만. 아직 잘 못봤다((소라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다시 꺼내려 한다))  
 소영 : ((은하의 손을 뿌리치며)) 안됐다.  
 은하 : 니 그러면 다시는 너하고 안난다. 알았제. 그럼도 안 그려줄거다.  
 소영 : 아니 아니다. 잔. 보여줄께.  
 ((은하의 손을 잡으며 자기 주머니에 있는 미키 수첩을 꺼내서 보여준다))  
 은하 : ((미키 수첩을 보면서)) 이거 한 장은 내 할게.  
 소영 : 그러면 내하고 놀아 줄거가?  
 은하 : 그래.  
 소영 : 음=((미키 수첩 한 장을 은하에게 준다))  
 은하 : ((미키 수첩을 한 장 받고 춤을 추면서 자기 가방에 넣는다))

은하가 자신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위해서 또래친구에게 협박이나 설득하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영이는 권력이인 은하에게 자신의 캐릭터 수첩을 먼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은하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었으며, 은하는 소영이가 캐릭터 수첩을 주지 않을 경우 다시는 함께 놀지 않겠다고 협박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박을 통해 협상을 하여 놀이 집단의 위계에 질서를 유지시키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었다.

효민이의 경우도 협박이나 설득하기 전략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실외놀이에서 나타난 담화의 실례이다.

효민 : ((철민이를 보고)) 너는 무거우니까 앞에 앉아라.  
 철민 : 아니다. 나는 뒤에 앉을 거다.  
 효민 : 그러면 시소가 안 움직이잖아. 니가 너무 똥똥하니까 안 되지.  
 철민 : 야. 니 마음대로 정하나.  
 효민 : 그래. 내가 정하는 대로 해야지.  
 진우 : 맞다. 철민이 니가 똥똥하니까 우리가 시소를 못 타겠다.  
 철민 : 시. 선생님한테 다 일러 버릴 거다. 내보고 똥똥하다고 했다고.  
 효민 : 그러니까 니가 앞에 앉아라고 했잖아

미영 : ((미끄럼틀을 타다가 와서)) 나도 시소 탈 거다.  
 효민 : ((옆에 시소를 가리키며)) 옆에 꺼 타라. 우리는 자리 없다.  
 미영 : ((시소 손잡이를 잡으며))여기 자리 있네.  
 진우 : 효민이가 영호 자리라고 했는데.  
 효민 : 내가 영호 자리 해 둔거다.  
 미영 : 니는 영호만 좋아하나.  
 효민 : 뭐=  
 미영 : 그러면 니는 영호하고 결혼할 꺼가?  
 효민 : 그래 왜?

이상은 자신이 정하는 대로 또래친구들이 따르도록 지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다. 권력이 효민이는 영호의 자리를 맡아두고, 철민이의 자리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똥똥하다는 이유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러한 설득과 반박을 통해 권력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었고, 미영이를 놀이에서 소외시키는 과정에서는 소외시키기와 협박의 모습이 함께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권력이가 집단의 질서와 놀이 집단을 유지시키면서 설득이나 협박의 기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여아들의 권력 결정 요인 중 언어를 통한 설득, 반박, 협상 등의 구사 능력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연구들(김재운·권민혁, 2002; 조경단, 1991)과 같은 결과를 가지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 9. 전략9 : 가르치기

권력의 또래간 담화에서 나타나는 지배 전략의 형태 중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양상으로는 가르치기 전략이 나타나고 있었다. 마치 작은 교사의 모습을 담은 듯한 가르치기 전략은 권력 체제를 이끌어가는 주된 전략이 되고 있었다. 수학영역의 또래집단 아이들은 마치 선생님 놀이를 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었는데, 효민이는 계

속해서 교사의 역할을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또래친구에게 가르치는 전략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효민 : ((진우의 숫자판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며)) 싸인펜으로 이 네모칸에 맞춰서 적어라. 그래야지 나중에 휴지로 잘 지워진다. 알겠제.
- 교사 : ((교사가 다른 영역으로 지나가다가 효민이를 보며)) 효민이 똑똑하네::
- 효민 : ((웃는다))
- 진우 : ((숫자판을 한참 보다가)) 답을 어디에 적어라고?
- 효민 : ((싸인펜으로 진우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어휴. 그것도 모르나? 여기에
- 동주 : ((진우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옆드려서 열심히 적고있다.))
- 효민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가지고 오세요.
- 효민 : ((숫자판을 각 남자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잔 여기 숫자판::
- 영호 : 어-나는 그거 안할거다.
- 효민 : 여기는 수 영역이니까 숫자판 활동해야지.
- 진우 : 주사위 던지기 해도 되잖아.
- 효민 : ((교사를 보며))선생님. 수학영역에서 다른 거 하면 안 되지요?
- 교사 : ((다른 유아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가 효민이를 보며)) 그래.
- 효민 : 봐라. 내말 맞제. 숫자판을 해야지 주사위도 던질 수 있다.
- 진우 : 그럼 내가 ( )숫자판 할게.
- 효민 : 그래 자. 이제 됐제? 문제 풀어라. 빨리 해야 한다.
- 동주 : 그래 맞다. 다 하면 니한테 검사 맡을게.
- 진우 : ((숫자판에 싸인펜으로 숫자를 적으며)) 그럼 니가 또 푸름반 선생님이가?
- 효민 : -2시 40분까지 검사 받으세요.

이러한 효민이의 교사 같은 행동에 수학영역의 또래집단 아이들은 이미 익숙해진 듯 학생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교사가 효민이가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말을 똑똑하다고 칭찬을 하면서 효민이의 교사처럼 가르치기를 강화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효민이의 말에 공감을 해 주면서 수학영역의 또

래집단 유아들에게 효민이의 말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사는 미술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효민이의 권력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효민이는 수에 대한 인지능력이 아주 높은 편이예요. 아이들이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영역을 선호하지만, 효민이나 은하는 특히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말을 얼마나 야무지게 잘 하는지... 근데 효민이는 발표를 할 때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은 절대 손을 들지 않아요. (2005. 12. 1 이 교사 면담)

이렇듯 권력아의 권력 행사 과정에서 다른 또래들을 가르치는 전략을 통해 권력 구조를 유지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힘에 균형을 유지시켜려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러한 가르치기 전략은 유아교사에 대한 모델의 영향을 받아 권력 형성의 중요한 매개체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러한 가르치기 전략은 교사가 권력아에 대한 우호적 태도에 기반을 두고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Lauer Black(2004)의 연구에서 교사와 학생과의 상호작용과 태도가 교실 내에서 학생의 사회적 위치를 만든다는 결과와 같은 기반을 두고 나타나는 전략이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유놀이시간 중 유아들 간 자발적인 대화과정 속에서 연구대상이 권력을 행사하는 언어적인 전략들을 파악하고자, 교실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담화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맥락과 의미를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래서 풍부하고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 특정한 세계가 가진 의미를 드러내는 질적 방법으로 일상생활

속에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이 권력 세계를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 유아들은 주로 푸름반 교실 내에서 이루어진 자유선택활동 가운데 또래집단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 유아 김효민·손은하의 교실 내에서의 권력 행사 전략은 서로 똑같아지기, 내 자리와 내가 먼저, 언니하기, 허락하기, 시키기, 소외하기, 자기 방어하기, 협박/설득하기/가르치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경단(1991)과 김재운·권민혁(2002)의 연구에서 여아들의 권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권력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아들의 경우 언어구사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여아들로만 구성되었는데, 이들의 담화에서 사용된 발화내용 중 소외사건은 Goodwin(1993)의 연구에서 여자아이들의 담화 패턴이며, 경쟁적이지 않다는 개념에 대응한다는 개념과 일치하였으며, 이는 Sheldon(1992)의 여자 아이들의 이중의 “담화” 사용과 Hughes(1993)의 여자아이의 “착함” 뒤에 숨겨진 경쟁과 소외의 목적을 제시한 것과 같은 맥을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 아이들의 담화 속에서 친밀함과 결속에 대한 것, 권력과 지위를 놓고 전략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이야기 하거나 서로 똑같아지기 등을 사용하며, 소외하기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모습은 Kyratzis(2000)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권력 행사 전략에서 두드러지는 의미를 가지는 영향 요인으로 유아 자신의 능력이나 교사의 태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첫째로, 유아 자신의 수학영역이나 미술

영역에서의 능력 요인은 내가 먼저, 언니하기, 시키기와 같은 전략을 통해 우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교사의 태도가 우호적이거나 선호를 나타내는 경우 권력 행사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력아들은 교사에게 수학영역이나 미술영역 이외의 다른 다양한 영역으로 이끌어 내거나 혹은 권력행사에 있어서의 특별한 주의나 지도는 받지 않았으며, 교사에 의해 정적인 강화(“똑똑하네” “그래”)를 받음으로 또래집단에서 더욱 권력아의 지위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권력아를 대하는 교사의 언어적 행동과 역할이 권력아의 권력행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Laur Black(2004)의 연구에서 교사와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교실 내에서 학생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데 도구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학생의 학습에도 현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결과이다.

셋째로, 권력아의 권력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부모들 간의 적극적 교류 및 유아교육기관에 참여하는 학부모간의 세력 등도 이들 권력아의 권력행사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부모가 유아교육기관에 참여하는 정도와 리더하는 정도가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유아들의 문제를 더 넓은 시각에서 조명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권력 행사 전략의 특성 및 배경에 따른 교사 및 부모의 지원 방안과 유아들의 지원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가 사례 집단의 권력 특성을 보인 여아 두 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성별, 연령 사례와 상황에

서의 심층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부모 및 교사의 역할과 요인에 대한 측면 보다 유아들의 담화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권력행사전략을 찾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부모, 교사, 환경의 요인에 따른 영향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김재운 · 권민혁(2002). 또래의 신체활동 게임에서의 권력결정요인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5(2), 407-421.
- 김진영(1998). 유치원에서 또래간 사회적 힘의 형성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9). 유아의 권력형성 과정에 대한 문화기술헌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2(2), 101-130.
- 박성주 · 홍용희(2002). 유아들의 사회적 힘의 부정적 사용 양상 및 특성. **아동학회지**, 23(5), 105-122.
- 백경미(1998). 유아의 인기도에 따른 의사소통기술과 친사회적 행동기술의 차이에 관한 연구. **아동연구**, 7(1), 270-283.
- 심성경(1996). 어머니-유아 의사소통과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47-60.
- 이부미(1991). 다연령집단 어린이들의 놀이와 권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주 · 윤지영(2004).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9(3), 265-281.
- 이철영(1985). 담화분석의 특성. **언어연구**, 2, 163-175.
- 조경단(1991). 또래집단의 리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서(1991). 또래집단의 리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latchford, P., & Sharp. P. (1994). Bread-time and the school : understanding and changing playground behavior. London : Routledge.
- Cameron, D. (1996). The language-gender interface : Challenging co-optation. In V. Bergvall, J. M. Bing, & A. F. Freed(Eds.), *Rethinking language and gender research : Theory and practice*(pp. 31-53). London : Longman.
- Coie, J. D., & Kupersmidt, J. B. (1983). A behavioral analysis of emerging social status in boys' groups. *Child Development*, 5, 1400-1416.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Dodge, K. A., Coie, J. D., Pettit, G. S., & Price, J. M. (1990). Peer status and aggression in boy's groups : Deveolpmental and contextual analyses, *Child Development*, 61, 1289-1309.
- Dodge, K. A., Pettit, G. S., McClaskey, C. L., & Brown, M. M. (1986).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2, Serial No.213), 78-92.
- Eckert, P., & McConnell-Ginet, S. (1992). Think practically and look locally : Language and gender as community-based practice. *Annual Review of Anthropollogy*, 21, 461-490.
- Erwin, P. (1995). Introduction to the transaction edition. In H. C. Foot, A. J. Champman, & j. R. Smith (Eds.), *Friendship and Social Relations in Children*. New Jersey : Transaction Publishers.
- Fetterman, D, M. (1989). *Ethnography : Step by step*.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
- Flori, S. E. (1978). Learning how to go to school : An ethnography of Interaction in a kindergarten first grade classroom. Unpublished Ed.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Freed, A. (1992). We understand perfectly : A critique of Tannen's view of cross-sex communication. In K. Hall, M. Bucholtz, & B. Moonwomon(Eds.), *Locating power : Proceedings of the second Berkeley women and language conference*(pp.144-152). Berkeley, CA : Berkeley Women and Language Group.



- Goodwin, M. H. (1993). Accomplishing social organization in girls' play : Patterns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an African-American working-class girls' group. In S. T. Hollis, L. Pershing, & M. J. Young(Eds.), *Feminist Theory and the Study of Folklore*(pp.149-165).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 Wiley.
- Hughes, L. (1993). "You have to do it with style" : Girls' games and girls' gaming. In S. T. Hollis, L. Pershing, & M. J. Young(eds.), *Feminist theory and the study of folklore*(pp.130-148).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Humphreys, A. P., & Smith, P. K. (1987). Rough and tumble, friendship, and dominance in school children : Evidence for continuity and change with age. *Child Development*, 58, 201-212.
- Jefferson, G. (1984). On the organization of laughter in talk about troubles. In J. M. Atkinson & J. Heritage(Eds.), *Structures of social action : Studies in conversation analysis*(pp.346-369).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tor, R., Elgas, P. E., & Fernie, D. E. (1993). Cultural knowledge and social competence within a preschool peer culture group.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125-147.
- Kyrtziz, A. (2000). Tactical uses of narratives in nursery school same-sex groups. *Discourse processes*, 29 (3), 269-299. Department of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Laura Black (2004). Teacher-pupil talk in whole-class discussion and processes of social positioning within the primary school classroom. *Language and education*, 18(5), 347-360.
- Leaper, C. (1991). Influence and involvement : Age, gender, and partner effects. *Child Development*, 62, 97-811.
- Leavitt R. L. (1991). Infant-toddler day care : Personal troubles/Public Issues(Day care, Power, Emo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Leavitt R. L. (1994). *Power and emotion in infant-toddler day car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Miller, P. M., Danaher, D. L., & Forbes, D. (1986). Sex-related strategies for cop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in children aged five and seve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43-548.
- Sheldon (1992). Conflict talk : Sociolinguistic challenges to self-assertion and how young girls meet them. *Merrill-Palmer Quarterly*, 38, 95-117.
- Sluckin, A. M., & Smith, P. K. (1977). Two approach to the concept of dominance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8, 917-923.
- Stake, R. E. (2000). 질적 사례 연구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홍용희 · 노경주 · 심종희 역). 서울 : 창지사(원전은 1995에 출판).
- Strayer, F. F. (1995). Child ethology and the study of preschool social relations. In H. C. Foot, A. J. Champman, & j. R. Smith(Eds.), *Friendship and Social Relations in Children*(pp.235-265). Transaction.
- Williams, D. E., & Schaller, K. A. (1993). Peer persuasion : A study of children's dominance strategie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88, 31-41.

2007년 2월 28일 투고 : 2007년 5월 21일 채택